

‘연이은 논란’ 시의회 사설보좌관...향방은?

급여 착복·최저임금 위반 등 지원관 5명뿐...초선 대다수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해야”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관례처럼 이어져오던 사설 보좌관이 계속 운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조 개선을 통해 악순환을 해결하려면 의원 보좌 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예산을 배정해 시간선택입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7명은 의원들이 사비를 모아 사설보좌관을 운용했다. 의원 1인당 1인 보좌관을 두기 위해 의원들은 한 달에 90만~100만원씩 모아 245만원 월급의 사설 보좌관을 채용했다. 사실상 편법으로 채용된 사설 보좌관과 관련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년 전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나현 전 의원이 제명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박미정 의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해 피소됐다. 이에 박미정 의원은 “고의적 미지급도, 횡령도 아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내달 출범할 제9대 의회에서는 기존 방식의 사설보좌관을 계속 운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사설보좌관 채용은 부적절하며, 시간선택입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9대 의회에서는 의원 보좌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올해는 최근 채용된 정책지원관 5명만이 의정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내년엔 추가로 6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당장 18명의 보좌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터라 의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주시의회는 올해 4명당 1명, 내년에는 2명당 1명의 보좌인력을 지원받게 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제9대 광주시의회는 23명의 의원 중 17명(73.9%)이 초선의원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보좌 인력도 없이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집행부 견제는 고사하고 앞가림도 하기 어려울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두 번이나 논란이 된 사설보좌관을 차기 의회에서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의원 개인이 사설보좌관이 두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 지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축사 2022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22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주당 광주·전남위원장 누가 되나

시, 이병훈·유력도, 신정훈·윤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에 나서면서, 차기 광주시당·전남도당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연임을 한 현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보로 이병훈 의원(동남)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는 초선인 이병훈·민형배 의원 등이 출마를 표명했으나,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아 재선인 송 위원장이 연임하게 됐다. 현재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이번에는 이 의원이 무난하게 시장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당 안팎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8월 전당대회 전까지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8월 전당대회 전에 복귀할 경우 시



이병훈 신정훈 윤재갑

당위원장보다는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송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초선인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남도당위원장 선거 당시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양보한 바 있다.

당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추대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신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했으며, 이번에는 도당위원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도당위원장 선출이 선거

로 갈 수도 있고, 합의추대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며 “8월 전당대회 전인 7월 말까지는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초선인 윤 의원은 향후 지역구 개편이나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재선 이상은 중앙에서 활동하고, 지역은 초선에 맡겨야 한다”며 “도당위원장 선출을 밀사합처럼 하면 안된다. 경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합의추대가 불발되고 경선을 할 경우 지역 간, 당원 간 갈등과 분열이 표출될 수 있어 지역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도당위원장 선출에 관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철도공단, 호남권 3개 철도사업에 4,625억원 투입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 호남권 3개 철도사업에 4,625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3,02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1,229억원),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371억원) 등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 목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5,300억원이며, 구간 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00km다. 2단계 구간 중 광주 송정에서 고택

진주~광양 전철화 등

원까지 26.4km는 기존 호남선을 고속화(최고속도 시속 230km)하는 구간으로 2019년 6월에 개통했다.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신설하는 고택원에서 목포까지 44.6km 구간은 7개 공구로 나눠 노반 공사를 시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오송에서 목포까지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운행 가능해진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지방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와 연결돼 수도권 이남은 물론 영남과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단선으로 건설(최고속도 시속 200km)하며 현재 공정을 82.5%다. 총사업비는 1조6,162억원이며 2024년 개통 목표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140분에서 67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광양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대처와 순천~부전 구간 열차 운행 효율화를 위해 진주에서 광양까지 51.5km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내년 개통이 목표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김승남,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주전문 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 전문 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

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 전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



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주산업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은 기자